

토마토 기준 김준현 시 | 송선옥 그림 | 문학동네 초등 4학년 이상

책 소개

소리는 모양이 되고 모양은 냄새가 되고…… 가지런한 세계를 흔들며 두근두근 숨 쉬는 말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똑같은 토마토, 가로로 읽어도 세로로 읽어도 똑같은 '토마토'. 아무리 봐도 그게 그거 같은데 무엇이다른 걸까 자리를 바꿔 가며 꼼꼼히 들여다보는 마음. 동시집 『토마토 기준』은 제목과 표지부터 다각도의 감상법을 제시하며,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은 동시들로 가득 차 있다. 「늘로우 모션」 속 나무늘보의 속도로, 「토마토 기준」에서 토마토를 고르는 눈길로 이 동시들을 찬찬히 읽다 보면 나에게도 있을 어떤 기준들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나에게도 "내속으로 숨고 싶을 때"가, "눈을 감아도 보이는 얼굴"이, "터지기 직전일 때"가 있다고.

80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똑같은 것

토마토 기준

토마토 여섯 개에 사천 원

한가득 쌓인 곳에서 엄마가 토마토를 이것저것 들었다 놓았다

토 토마토도 집어 보고 마도 집어 본다 토

앞으로 봐도 토마토 뒤로 봐도 토마토 내 눈에는 전부 그게 그거 같은데

빛에 비춰 보며 이리저리 굴려 보며 꼼꼼히 고르고 있다





| 위로 봐도 아래로 봐도 똑같은 낱말들을 생각나는 대로 써 보세요. |
|---|
| |
| . 떠오리 다시 즈 쉰나르 기저이나나이 나르 |
| • 떠올린 단어 중 하나를 가져와 나의 시를 써 보세요. |
| |
| |



나무늘보의 움직임을 떠올리며 「늘로우 모션」을 읽어 보세요.
"나무늘보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뒤에 또 어떤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시를 재미있게 이어 써 보세요.

늘로우 모션 나무늘보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졸린 나무늘보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잠이 든 나무늘보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잠이 깬 나무늘보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배가 고픈 나무늘보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고개 옆의 나뭇잎을 본 나무늘보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고개를 돌린 나무늘보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고개 옆의 나뭇잎을 뜯은 나무늘보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잎을 한 번 씹은 나무늘보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잎을 두 번 씹은 나무늘보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잎을 세 번 씹은 나무늘보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배가 부른 나무늘보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더 할 게 없는 나무늘보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이틀 후의 나무늘보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일 년 후의 나무늘보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는 걸 계속 읽다가 지겨워진 네가 책장을 넘겨도 나무늘보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고 계속 쓰던 내가 지겨워서 이제 그만 쓰고 싶어도 나무늘보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다

🖦 내 친구 그려 보기

「명진이만 모르는 명진이」에서 스물다섯 명의 반 친구들이 명진이를 그리고 있어요.

나도 시를 읽고 내 친구를 그려 보아요.

친구는 어떤 색 옷을 자주 입는지, 어떤 표정을 자주 짓는지

그리는 동안 친구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명진이만 모르는 명진이

오늘 까불거리기로 유명한 명진이는 일시 정지

누가 리모컨이라도 쥐었는지 볼륨이 낮은 교실

교실엔 잎을 갉아 먹는 소리만 난다 사각사각 사각사각사각사각사각사각

몸을 쓰다듬는 붓질이 간지러워도 번데기 등이 툭 터지기 전까지는 꼼짝을 못 하듯

우리들의 명진이 얼굴에 점 하나 잘못 찍힌 명진이 파란 물감이 모자라 보라색 티셔츠 입은 명진이 혀를 내민 명진이 인어가 된 명진이 영혼 없는 명진이 명진이를 하나도 안 닮은 명진이……

햇볕 드는 창가에서 스물다섯 명의 명진이가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명진이



1954 내가 쓰는 추천사



『토마토 기준』에는 해설 대신 어린이 독자들이 직접 읽고 쓴 추천사가 실려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를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도 함께 써 보세요.